

연극인 임서방(任曙昉) 연구

— 1930년대 활동을 중심으로 —

김 남 석*

차 례

1. 임서방의 행적과 문제 제기
2. 조선연극사 시절(배우 겸 작가)
3. 연극시장 시절(배우 겸 연출가)
4. 조선연극사와 연극시장 경쟁기
5. 신무대 시절(경영자 겸 연출가)
6. 태양극장 시절과 황금좌에서의 행적
7. 임서방의 활동 상황 정리

1. 임서방의 행적과 문제 제기

임서방은 일본 동경에서 요도바시 연극연구소를 마치고, 조도(早大) 문과에서 뜻을 기른 후, 고향인 원산으로 돌아왔다. 원산에서 산양회(山羊會)라는 극단을 조직했고, 그 뒤에는 동경에 근거를 두고 조선극회를 주재하기도 했으며, 북선 연극운동의 선구자라고 평가되기도 했다. 귀국해서 조선연극사에서 활동하다가 연극시장으로 이전한다. 알려지기는 극작가로 많이 알려졌지만, 실제로 배우 생활도 했고, 연출 활동도 했다. 특히 그는 주어지는 배역을 가리지 않고 해내는 배우였다.¹⁾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임서방에 대한 기록은, 그가 활동하던 당시에도 그렇게 풍부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연극사에서 임서방에 대한 언급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다. 일단 유민영의 기록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유민영은 조선연극사를 언급하면서, “일본색을 탈피하기 위해 창작극을 우선하기로 한 ‘조선연극사’는 최초로 전속작가로서 왕평·임서방 등에게 후한 급료를 주어 작품을 의뢰했다”고 기술하고 있다.²⁾

이러한 기술은 반가운 것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당시 신문광고를 대조해 보면 임서방의 창작품과 각색 작품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임서방이 조선연극사의 발족과 함께 조선연극사에 가입한 것은 아니며, 그가 창작품만 제공한 것도 아니며, 실제로 임서방 이전에도 전속작가가 없었던 것도 아니다. 가령 천한수는 취성좌 시절부터 레퍼토리를 공급하고 있었다. 임서방과 왕평은, 천한수를 보완하고 대체하기 위해서 영입되었을 가능성이 더욱 높다.

조선연극사 이전의 임서방의 활동에 대해서 거의 알려진 바 없지만, 1930년대 이후의 임서방의 행적에 대해서는 더욱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런데 유민영은 다음과 같은 기술을 통해, 임서방의 행로를 언급하고 있다. “여성국악동호회”는 곧바로 창립공연 준비에 들어갔는데, 단체가 손수 여류명창들로만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획이라든가 섭외 등에 손방 이어서 김소희·박녹주 등과 전부터 인연이 있었던 신파극극작가 임서방이 뒷바라지를 했다”.

임서방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 여성국악동호회와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단체가 활동하던 1948년 전후에 임서방이 국내(남한)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의 연구를 통해 그간의 행적 및 활동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서연호는 임서방의 작품을 제시했다. 그는 1920년대 이후의 대중극 중에서 주목할 만한 작품을 열거하면서, 임서방의 <앵여라차 행진곡>을 그

1) 「무대스타 순방기」(3), 『매일신보』, 1931년 6월 16일, 5면 참조.

2) 유민영, 『우리시대의 연극운동사』, 단국대출판부, 1989, 119면 참조.

안에 포함시켰다. 그는 이 작품이 ‘철로공사장 인부의 노래극’이라는 파격적인 정의를 내리고 있다.³⁾

‘행진곡’이라는 제명은 취성좌 계열에서 작품 제명으로 흔히 붙이곤 했다. 예를 들어 <처녀들의 행진곡>(1929년 7월 21일부터)⁴⁾, <부세행진곡>(1929년 9월 9일부터)⁵⁾, <경성행진곡>(1929년 11월 27일부터)⁶⁾ 등이 그것이다. 당시 광고를 참조하면 <처녀들의 행진곡>은 ‘가극’이라는 장르 명칭을 부기하고 있었고, <부세행진곡>은 ‘회가극레뷰극’ 혹은 ‘회가극’이라는 장르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취성좌의 체제와 관례는 거의 그대로 조선연극사로 이어졌고, 조선연극사에서 공식 데뷔한 임서방은 연극시장을 거쳐 신무대에서 <앵여라차 행진곡>을 발표했다.⁷⁾ 따라서 취성좌—조선연극사—연극시장—신무대의 연속선상에서 보면, <앵여라차 행진곡>은 회가극 풍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작품은 당시 장르 명칭으로는 ‘문제극’이라는 제명을 부기하고 있고, 실제 작품을 살펴보면 노래의 비중보다는 플롯의 비중이 높다고 해야 한다. 작품의 결미에서 등장인물들이 과오를 뉘우치고 서로 화합하는 대목이 있고, 그 대목에서 ‘앵여라차’ 소리를 내며 노동에 전념하겠다는 설정이 있는데, 노래가 투입한다면 그 곳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노래가 이 작품에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비중은 낮았다고 볼 수 있다.

김남석은 신무대를 연구하면서 임서방의 작품과 활동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임서방은 연극시장을 탈퇴해서 신무대에 가입하면서 2회 공연에 <앵여라차 행진곡>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작품과 그에 대한 연극평이 남아 있어, 당시 공연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무대에서 임서방의 초기 활동을 재구한 바 있다.

3) 서연호, 『한국근대회곡사』, 고려대출판부, 1994, 237면.

4) 『매일신보』, 1929년 7월 21일, 2면 참조.

5) 『매일신보』, 1929년 9월 10일, 2면 참조.

6) 『매일신보』, 1929년 11월 27일, 2면 참조.

7) 김남석, 「신무대 연구」, 『2006년 동계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우리어문화회, 2006년 2월 14일, 43~44면 참조.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임서방 개인에게 기술의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었다. 신무대의 발족과 출범기의 상황을 재구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이었다. 사실 앞의 두 연구자 역시 임서방 개인에 대한 연구를 시행한 것은 아니었다. 1930년대 연극(공연과 극단)의 흐름 속에서 임서방의 이름은 불쑥불쑥 연극사의 요처에 등장했다 퇴장했다. 그것은 많은 연극인들이 활동하던 당시의 연극계를 압축 기술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임서방의 역할을 재고하는 것은 당시 연극계를 조망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임서방은 1930년대 대중극계의 흐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그는 조선연극사의 전속작가에서 출발해서 연극시장에서 연출가로 변모했다. 신무대 시절에는 예술좌라는 극단을 독립시켜 운영하는 운영자의 면모도 보였다. 이러한 변모 양상은 임서방이 기본적으로 배우였다는 사실과 관련짓는다면 더욱 이채롭다.

그는 배우, 작가, 연출가, 경영인의 마인드를 두루 경험했으며, 연극시장 창립이나 신무대 통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1930년대 대중극계의 중요한 일익으로 활동했다. 그의 행로는 취성좌 계열의 극단이 결었던 행로와 일치하며, 그의 선택에 따라 극단의 이합집산이 결정되기도 한다. 따라서 임서방의 행로와 선택을 중심으로 1930년대의 대중극계를 새롭게 조망할 수 있다. 이 연구는 1930년대 임서방의 연극적 이력을 가급적 자세하게 재구성하고, 그러한 이력과 관련지어 당시의 극계를 살피는 것에 목적을 둔다.

2. 조선연극사 시절(배우 겸 작가)

임서방이 공식적으로 연극계에 등장하는 시점은 1930년 8월 경이다. 조선연극사 하기 공연이 1930년 8월 12일부터 시작되는데, 당시 광고에는 조선연극사가 '총원 50여명의 대일좌(大一座)'라는 선전 문구가 부기된다. 그러면서 남자부(연기자), 여자부(연기자), 이사부(변기종, 이동호), 전무(지두환), 각본부, 연출부, 장치부, 음악부(김교성 등) 등의 체제가 소개된

다. 임서방은 이 중에서 남자 연기부와 각본부에 소속되어 있다. 즉, 임서방은 배우이자 작가였다.⁸⁾

1주차 공연에서 공연된 작품은 모두 세 작품으로 <처녀와 총각>(전 1막 3장), <붉은 장미>(1장), <꿈을 파는 사나히>(1막)이었다. <붉은 장미>는 강홍식(기)안이었고, <꿈을 파는 장미>는 임서방과 함께 각본부에 소속되었던 왕평 작이었다. 임서방의 작품은 <처녀와 총각>이었다. 이 작품에는 '조선연극사소연 新각복'이라는 문구와 '향토민요의 극화', '애절한 시대연애극'이라는 설명이 부기되어 있다.⁹⁾

흥미로운 것은 이 작품에 붙어 있는 '전원총출연'이라는 광고문구이다. 당시 조선연극사 배우 총 인원은 남자 배우 25명(임서방 포함), 여자 배우 17명이었다. 그렇다면 42명에 육박하는데, 이 배우들이 모두 출연하려면 대단한 규모가 아닐 수 없었다. 전원을 배경으로 한 남녀 간의 러브스토리를 극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대규모의 배우들을 동원할 정도로 심혈을 기울였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연극사는 1930년 4월 말을 기점으로 단성사에서 공연을 일시 중단했다.¹⁰⁾ 그리고 1930년 5월 30일 평양 금천대좌에서 흥행할 예정으로 5월 28일 평양을 향해 출발했다는 기사가 전하고 있다.¹¹⁾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조선연극사는 6월과 7월을 통해 일시적 휴면 상태 혹은 공연 냉각기로 접어들었다. 그러다가 8월 12일을 기점으로 하기공연에 매진하게 되었는데, 그 기획의 일환으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작품이 <처녀와 총각>이었다. 이 작품이 1막 3장에 달하고, 전원총출연을 목표로 한 것은 조선연극사의 의지와 기획 의도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임서방은 조선연극사의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작품을 제공했다. 이것은 임서방의 극작 역량과 극단 내 비중이 상당히 높게 인식되었음을 뜻한다. 특히 임서방은 배우이자 극작가로서 상당한 장점을 갖추고 있어, 상대

8) 『매일신보』, 1930년 8월 12일, 1~2면 참조; 『조선일보』, 1930년 8월 12일(夕), 7면 참조

9) 『매일신보』, 1930년 8월 12일, 1~2면 참조; 『조선일보』, 1930년 8월 12일(夕), 7면 참조

10) 『매일신보』, 1930년 4월 26일, 1면 참조.

11) 『매일신보』, 1930년 7월 5일, 7면 참조.

적으로 그 역할이 다양했다고 할 수 있다.

임서방의 등장으로 인해 조선연극사는 특히 대본 공급이 수월해졌다. 그것은 그 다음 공연에서부터 바로 확인된다. 1930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하기공연 2주차 공연에서 임서방은 <카푸에 수경(數景)>(전 1막)을 집필했다.¹²⁾ 또 1930년 8월 22일부터 시행된 하기공연 3주차 공연에서는 양극 <스피오네>(전 2막)를 연출했고, 희극 <신가정>(2막)을 집필했다.¹³⁾ 특히 <스피오네>를 선전한 광고에서 임서방의 역할을 밝힌 점은 주목된다. 이 작품은 조선연극사 신작 각본으로 표기되었다. 당시 관례를 보면 작가나 주요 배우나 출연진을 간헐적으로 밝히기는 했지만, 각색자의 이름을 밝히는 경우는 흔하지 않았다.¹⁴⁾

<카푸에 수경>에는 '소녀반 총출연'이라는 구절이 부기되어 있다. 조선연극사가 대규모의 악단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점은 확인되었다. 그러나 무용단을 거느리고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소녀반'이라는 명칭으로 보았을 때 무용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소녀반은 취성좌 시절부터 존속했는데¹⁵⁾, 취성좌의 체제를 조선연극사가 취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8월 22일부터 시작된 3주차 공연에서 임서방의 두 작품은 신작각본으로 소개되고 있다. <스피오네>(임서방 각색)는 서양극으로 보이는데 원작을 임서방이 새롭게 바꾸었다는 뜻이고, <신가정>(임서방 작)은 '조선연극사 소연 신각본'이라는 설명 문구가 부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두 작품 모두 이전에는 공연된 적이 없는 새로운 작품인 셈이다.

실제 조선연극사의 공연 일정을 보면, 창작이나 각색에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않았다. 극단원들은 5~6일 간격으로 바뀌는 레퍼토리에 적응해야 했고, 작가들은 그 레퍼토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색을 강구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외국작에 대한 번역(각색), 과거 작품의 리바이벌,

12) 『매일신보』, 1930년 8월 19일, 6면 참조.

13) 『매일신보』, 1930년 8월 23일, 4면 참조.

14) 『매일신보』, 1930년 8월 19일, 6면 참조.

15) 가령 취성좌가 경성에 본격적으로 입성하여 두 번째 공연인 1929년 7월 9일 공연을 보면, '취성좌 소녀반 총출연'이라는 문구가 나타나고 있다(『매일신보』, 1929년 7월 6일, 2면 참조).

그리고 소품 류의 간단한 작품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임서방은 2막에 달하는 작품을 두 작품이나 무대에 올리는 기염을 토하면서 그 위상과 중요도를 과시하였다.

조선연극사 시절 임서방의 대표작은 <눈오는 밤>이었다. 1930년 12월 17일부터 조선연극사 창립 1주년 기념대흥행 제 2주 공연작으로 단성사에서 공연된¹⁶⁾ 이 작품은 1930년 12월 21일부터 23일까지인 3주차에도 다시 공연되었다.¹⁷⁾ 1930년 12월 21일은 단성사 창립 12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조선연극사 측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12월 21일, 22일, 23일 사흘 동안 특별 이벤트를 실시했다. 이 기간에 공연을 본 사람들에게는 해당 관람권을 가지고 다음 공연을 볼 수 있도록 배려했는데, 1930년 12월 24일·25일 무료 관람이 그 이벤트에 해당되었다.

임서방의 작품은 공연 기간도 길었지만, 창립 12주년 기념행사의 레퍼토리로 선정되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눈오는 밤>은 관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보인다. 1930년 12월 26일부터 조선연극사는 '연도미의 대흥행'을 계획하면서 <눈오는 밤>의 후편 1막을 무대에 올렸다. 이른바 속편이 만들어진 것인데, 이것은 전편에 대한 반응이 폭발적일 때에만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3. 연극시장 시절(배우 겸 연출가)

연극시장은 1931년 1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경설 편 <처녀구약부>, 이경설 작·임서방 각색 비극 <여자는 어대로 가나>(2막), 그리고 하석조 작 비극 <속세를 떠나서>(1막)를 단성사에서 공연하면서 '연극시장 공연 선전주간'을 공고했다.¹⁸⁾ 한편, 조선연극사가 1931년 1월 1일부터 개성 흥

16) 『매일신보』, 1930년 12월 18일, 4면 참조 ; 『조선일보』, 1930년 12월 18일(夕), 3면 참조.

17) 『매일신보』, 1930년 12월 21일, 7면 참조.

18) 『매일신보』, 1931년 1월 28일, 7면 참조.

행에 나서고 있었고,¹⁹⁾ 1931년 3월 16일에는 경북 김천에서 공연하고 있었으며 1931년 3월 18일 아침 대전으로 향했다는²⁰⁾ 당시 기사들을 종합할 때, 조선연극사는 1930년 12월 공연을 기점으로 지방 공연에 몰두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연극사가 경성 공연을 재개하는 시점은 1931년 6월 1일이다.²¹⁾

그렇다면 연극시장에 출범하는 1931년 1월 18일 시점에서 임서방은 조선연극사가 아닌 연극시장에 몸담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임서방이 연극시장으로 이적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도 있다. 연극시장은 1931년 1월 31일 ‘연극시장 첫 공연’을 시작하면서 극단 진용을 발표했다. 임서방은 연출가 겸 남자부 배우로 그 진용에 포함되어 있다.²²⁾

흥미로운 점은 임서방이 연출가로 분류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연극사 시절 임서방은 작가 겸 배우로 분류되었다. 연출 작업을 책임졌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으로 ‘연출’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연출가라는 분업 개념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임서방의 연출자 표기는 특기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서방은 작가로서도 활동했다. 선전주간에서 각색작을 발표한 이후, 그는 연극시장 제 2주 공연에서 비극 <맹부>(전 2막, 일명 ‘현실의 산물’)를 발표했다.²³⁾ 이 작품은 이경설과 서백생(서일성)이 주연한 작품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다.²⁴⁾ 특히 <맹부>는 ‘문제의 각본’이었는데, 그 이유는 ‘각본 검열 보류’로 ‘2주만에 겨우 통과’되었기 때문이다.²⁵⁾ <맹부>는 ‘연극시장 첫 공연 제 3주’공연에서도 레퍼토리로 상연되었다.

2주차 공연에서 임서방은 비극 <맹부>를 집필했을 뿐만 아니라, 문의

19) 『매일신보』, 1931년 1월 17일, 7면 참조.

20) 『조선일보』, 1931년 3월 21일, 6면 참조.

21) 『매일신보』, 1931년 6월 1일, 1면 참조 ; 『매일신보』, 1931년 6월 2일, 5면 참조.

22) 『매일신보』, 1931년 1월 31일, 4면 참조 ; 『조선일보』, 1931년 1월 31일, 5면 참조.

23) 『매일신보』, 1931년 2월 5일, 7면 참조 ; 『조선일보』, 1931년 2월 5일, 3면 참조.

24) 김남석, 『배우 서일성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한국문학연구학회, 2005, 172~173면 참조.

25) 『매일신보』, 1931년 2월 8일, 2면 참조.

봉의 비극 <국경의 밤>(1막)을 연출하였다.²⁶⁾ 당시 신문광고에서 연출자의 이름을 표기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했다. 연출가의 역할과 비중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임서방 본인의 명성도 그리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임서방의 연출 사실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이러한 주변 자료로 보았을 때, 임서방의 극단 내 위상이 상당히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연극시장의 창립 단원으로서의 임서방은 주목된다. 유민영은 누적된 배우들의 불만 때문에, 조선연극사가 분리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²⁷⁾ 서항석은 당시 연극계를 진단하면서 한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면 세력이 분립되어 파벌을 각자 형성하는 풍조가 유행했다고 했다.²⁸⁾ 연극시장 창립 단원 중에 이경설, 문수일, 성출, 임서방 등은 조선연극사를 탈퇴하여 합류한 이들이었다. 이들은 조선연극사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었거나, 특출한 재능을 드러내면서 기존의 세력과 마찰을 빚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임서방은 이경설과 함께 연극시장 창립의 주축 멤버로 손꼽혔다.²⁹⁾ 임서방의 경우, 그의 다양한 활동 영역을 생각할 때 그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선연극사 시절 임서방은 배우 겸 작가로서 왕성한 창작능력을 보여주었고, 기본적으로 연출능력마저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다재다능한 능력은 지두한, 천한수, 강홍식 등의 조선연극사 간부진과 분리된 새로운 세력을 형성했을 가능성이 높다. 더구나 연극시장은 출범부터 마땅한 연출자를 확보한 극단이 아니었기 때문에, 임서방은 연출가로 활동하기에 적임이었다.

연출가로서의 활동은 1931년 2월 13일부터 4일간 시행된 ‘연극시장 첫공연 제4주최중주간’ 공연에서 두드러졌다. 공연 예고된 작품은 모두 3작품으로 박영호 작 양극 <지옥>(1막 3장), 박영호 작 비극 <북관야화>(1막 3장), 김영환 작 회가극 <보재기귀신>(전 1막)이 그것이다.³⁰⁾ 이 세 작품

26) 『매일신보』, 1931년 2월 5일, 7면 참조.

27) 유민영, 『우리시대의 연극운동사』, 단국대출판부, 1989년, 121면 참조.

28) 서항석, 『극계의 동정』, 『신동아』(2권 11호), 1932년 11월, 56면 참조.

29) 『동아일보』, 1931년 1월 31일, 4면 참조.

모두 임시방이 연출을 맡았다. 1931년 5월 30일 라디오 방송으로 만들어진 회가극 <부자와 양반>(전 1막)의 '방송지휘(연출)'도 임시방이 맡았다.³¹⁾

4. 조선연극사와 연극시장 경쟁기

연극시장은 1931년 6월 4일부터 단성사에서 공연했다.³²⁾ 연극시장은 1931년 3월 16일부터 18일까지는 안동현에서,³³⁾ 4월 30일부터 31일까지는 박찬에서³⁴⁾ 공연한 바 있다. 더구나 1931년 6월 4일부터 경성 공연을 재개한다는 신문 기사를 참조하면,³⁵⁾ 1931년 2월 경성 공연(제 4주 최종주간)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지방 공연에 전념했던 것을 알 수 있다. 1931년 6월 4일 공연은 재개된 경성 공연에 해당한다.

흥미로운 점은 1931년 6월 1일부터 조선연극사 역시 경성 공연(조선극장)을 재개했다는 점이다. 두 극단은 경쟁적으로 공연 대결을 펼쳤고, 이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도 이러한 경쟁에 맞추어져 있었다. 특히 『매일신보』는 두 극단의 저력과 영향력을 고려해서, 두 극단의 주요 인물들(주로 배우)을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실었다. 연극시장과 조선연극사를 번갈아 가며, 극단의 주요 배우들의 이력과 체험담을 실었는데, 이러한 기사로 보았을 때 두 극단은 일정한 라이벌 의식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임서방은 이러한 경쟁기에 흥미로운 이력을 남겼다. 두 극단은 약 한 달 가량 경쟁적으로 공연했는데, 임시방의 작품(각색, 재공연 포함)이 두 극단 모두에서 공연된 것이다. 먼저, 경쟁기간 동안 연극시장에서 임시방의 작품(창작과 각색)이 공연된 것은 모두 6주차이다. 차례대로 열거하면

30) 『매일신보』, 1931년 2월 13일, 7면 ; 『조선일보』, 1931년 2월 14일, 5면 참조.

31) 『매일신보』, 1931년 5월 30일, 5면 참조.

32) 『매일신보』, 1931년 6월 4일, 7면 참조.

33) 『조선일보』, 1931년 3월 17일(夕), 7면 참조.

34) 『조선일보』, 1931년 4월 5일(夕), 6면 참조.

35) 『매일신보』, 1931년 5월 31일, 5면 참조.

1931년 6월 4일부터(1주차) <결혼전선 이상없다>(임서방 각색)³⁶⁾, 1931년 6월 9일부터(2주차) <며느리>³⁷⁾, 1931년 6월 14일부터(3주차) 회가극 <나는 농부가 좇타>³⁸⁾, 1931년 6월 19일부터(4주차) 회가극 <처녀구악부>(임서방 각색)³⁹⁾, 1931년 6월 22일부터(5주차) <인종상품>(1막 2장)⁴⁰⁾, 1931년 6월 27일부터(6주차) 대비극 <아아 청춘>(전 2막)⁴¹⁾, 1931년 7월 1일부터(7주차) 문예명작 <효명(曉明)의 로(路)>⁴²⁾가 그것이다. 그리고 조선연극사와의 경쟁 기간이 지난 후인 1931년 7월 14일(11주차)에 양극 <수비군의 사랑>(전 1막)⁴³⁾을 발표했다. 대부분의 작품이 신작이었고, 각색작인 경우에도 임서방이 이전에 작업했던 것을 재공연한 것은 아니었다.

이 중에서 <며느리>는 재고를 요하는 작품이다. 임서방의 작품 중에는 1931년 6월 9일부터 공연된 <며느리>⁴⁴⁾가 이경설 주연으로 대성황을 이루었다고 했다.⁴⁵⁾ 그런데 이 작품이 혹시 유민영이 말한 <어머니>일 수 있다. 유민영은 이경설의 대표작 가운데 하나로, <어머니>를 꼽고 있다. 이 작품에는 가난한 집의 아내가 남의 집 쓰레기통에서 복어를 주워 병들어 누운 남편에게 먹였다가 남편이 죽자 애통해하는 장면이 있었다고 한다. 유민영은 이 공연을 보던 한 관객이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깊이 공감해서 객석에서 울었다는 일화도 전하고 있다.⁴⁶⁾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어머니>에 이경설이 출연했다는 사실을 실증할 수 없다. 왜냐하면 조선연극사에서 <어머니>가 공연될 시점에 이경설은

36) 『매일신보』, 1931년 6월 4일, 7면 참조.

37) 『매일신보』, 1931년 6월 9일, 7면 참조 ; 『매일신보』, 1931년 6월 13일, 7면 참조.

38) 『매일신보』, 1931년 6월 14일, 1면 참조.

39) 『매일신보』, 1931년 6월 19일, 1면 참조.

40) 『매일신보』, 1931년 6월 22일, 1면 참조.

41) 『매일신보』, 1931년 6월 27일, 4면 참조.

42) 『매일신보』, 1931년 7월 2일, 7면 참조.

43) 『매일신보』, 1931년 7월 19일, 1면 참조.

44) 『매일신보』, 1931년 6월 9일, 7면 참조.

45) 『매일신보』, 1931년 6월 9일, 7면 참조 ; 『조선일보』, 1931년 6월 10일(夕), 5면 참조.

46) 유민영, 『우리시대 연극운동사』, 단국대출판부, 1989, 120면 참조.

신무대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신무대나 연극시장에서 <어머니>를 공연한 흔적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했다. 유민영이 기술에 대한 보다 세부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가정극 <며느리> 상연

—9일부터 연극시장에서대중 본위의 극단 연극시장이 시내 단성사에서 흥행한 뒤로 매일야 성황이러는데 9일부터 임시방 작 ‘며느리’ 상영하리라 하는 바 현대 조선가정을 풍자한 희곡이라 한다.47)(강조 : 인용자)

다음은 1932년에 공연된 조선연극사의 <어머니>이다.

‘어머니 어머니’ 이 세상에 모성애란 그 얼마나 위대한 위대한 것이라! 자식을 위하여는 그어머니 자기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도 앓기지 않는 그 감격한 마음! 여기에 한 가정이 있고 집에 늙으신 어머님은 아들의 만복을 위하여 며느리의 학대를 오히려 달게 바드면서 수년을 지내온 꾀해 혹독한 학대는 그여히 그 늙은 어머니에 처참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다! 보아라! 드러라! 세상에 상식 없는 남의 며느리들아!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남의 자식된 사람들아! 그리하여 깨닫는 직실의 눈물을 흘려 주기를 바라노라.48)

일단 <며느리>의 내용은 알 수 없다. 다만 여주인공이 같고, 상황 설정이 비슷하며, 당대의 인기를 모았다는 점에서, 유민영이 말한 <어머니>를 연상시킨다. 특히 ‘현대 조선가정을 풍자한 희곡’이라는 점은 조선연극사의 <어머니>내용과도 일치한다. 이경설이 노파(시어머니) 역을 맡았지만, 제목을 악역인 ‘며느리’에 맞추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제명(‘며느리’)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그 문제제기 이상의 확증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47) 『조선일보』, 1931년 6월 10일(夕), 5면 참조.

48) 『매일신보』, 1932년 5월 1일, 2면 참조.

반면 경쟁시기에, 조선연극사에서 공연된 작품들은 그 양상이 다르다. 1931년 6월 4일부터 임서방 작 희극 <신가정>(전 1막)이 공연되었고,⁴⁹⁾ 1931년 6월 9일부터 임서방 작 희극 <연애광상곡>(전 1막)이 공연되었으며,⁵⁰⁾ 1931년 6월 28일부터 임서방 작 인정비극 <눈나리는 밤>(전편)이 공연되었다.⁵¹⁾ <신가정>은 1930년 8월 22일부터 조선연극사에서 이미 공연된 바 있었고, <연애광상곡>은 1930년 12월 12일부터 왕평 작으로 역시 조선연극사에서 공연된 바 있었으며, <눈나리는 밤>은 1930년 12월 17일부터 공연된 바 있었던 <눈오는 밤>과 같은 작품으로 추정된다.

다시 말해서 조선연극사에서 연극시장과의 경쟁기에서 공연된 임서방의 작품은 모두 기존의 작품을 리바이벌한 것이었다. 특히 6월 4일부터의 공연과 6월 9일부터의 공연 일시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 두 극단 모두 6월 4일과 9일부터 새로운 공연 주(주차)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임서방은 이 시기 조선연극사와 연극시장에서 동시에 전속작가로 활동할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임서방은 조선연극사를 떠나 연극시장에서 전속작가로 활동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다만 임서방은 조선연극사 시절 발표했던 작품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의 과거 작품 중 일부가 조선연극사에서 공연 예제로 선택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임서방 이름으로 발표된 작품 중에도 상당한 작품들은 집단 창작의 혐의가 있다. 가령 왕평의 <연애광상곡>이 임서방의 작품으로 표기된 것⁵²⁾도 두 사람 중에 누구의 것이라고 확정짓기 곤란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을 것이다.

또한, 이후 조선연극사 공연에서 리바이벌 된 임서방의 작품에서도 그러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임서방의 창작이 임서방 원작으로 표기되어 공연되는데, 1930년 10월 18일 공연된 비극 <눈나리는 밤>과, 희극 <연애광상곡>이 그 경우이다.⁵³⁾ 임서방의 작품이 공연될 수 있었던 것은

49) 『매일신보』, 1931년 6월 4일, 7면 참조.

50) 『매일신보』, 1931년 6월 9일, 7면 참조.

51) 『매일신보』, 1931년 6월 28일, 7면 참조.

52) <연애광상곡>은 1930년 12월 12일부터 조선연극사에서 왕평 작으로 공연된 바 있다(『매일신보』, 1930년 12월 12일, 5면 참조).

임서방이 조선연극사에 복귀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작품을 구상하고 제작하고 초연하고 원작자의 이름을 발표할 당시에 조선연극사에서도 압 목적으로 동의하고 상당 부분 협조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연극이 긴 연습 기간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행해졌고, 여러 사람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임서방 역시도 자신의 작품을 완전한 개인 창작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무엇보다 조선연극사가 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극단 경쟁기에 두 극단 모두에서 임서방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다분히 상징적이다. 임서방은 그 당시 흔하지 않았던 일류 전속작가(좌부작가)였다. 그는 다수의 작품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연출 능력을 지니고 있어 작품을 형상화할 수 있었던 연극인이었다. 상황이 촉급하면 배우로 직접 연기에 매진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재능이 있었기에 연극시장뿐만 아니라, 조선연극사에서든 그는 필요한 존재였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연극 시장과 같은 경쟁 단체에서 활동하는 연극인이었지만, 조선연극사는 그의 작품(그의 창작 비중이 높았던 작품)을 공연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조선연극사가 1931년 7월 1일 공연 이후 일시적 공백기를 갖게 되면서, 두 극단의 경쟁구도는 종결된다. 조선연극사에서 신불출, 이원재, 이종철, 전경희가 탈퇴했기 때문에, 조선연극사는 인천으로 지방 순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⁵⁴⁾ 흥미로운 것은 1931년 7월 6일 8주차 공연에서 임서방이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으나, 임서방은 7주차 까지 계속 발표하던 작품을 중단했다. 그리고 1931년 7월 18일 제 11주차 공연에서 <수비군의 사랑>을 발표한 후,⁵⁵⁾ 일본으로 출장을 떠나게 되었다.

이애리스 양 '연극시장'에-목하 시내단성사에서 장귀홍행중에잇는 극단연극시장에서는 그동안 흥연중에잇는 극단의명성 이애리스양을 마지하는동시에 각본, 연출, 두가지의연구를 겸하여 문예부간사 임서방씨를 동경대판등지

53) 『매일신보』, 1932년 10월 18일, 2면 참조.

54) 『현하반도극계』, 『삼천리』, 1933년 5월 참조.

55) 『매일신보』, 1931년 7월 19일, 1면 참조.

로 출장을식하게되었다한다. 이에리스양은 25일밤부터 같나는 새프로에 이서
구씨 작 '홍국백국'에 이경설양과 형제가되야 오래동안 그리든 관객에게 대
하게될것이며 임서방씨는 25일밤 급행으로 동경으로 향하여 왕복2주일예정
으로 연구시찰을하고 오리라한다. (사진-이에리스)⁵⁶⁾

이에리수의 영입은 연극시장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었을
것이다. 당시 연극시장의 중심 배우는 이경설이었는데, 이경설은 연극시장
활동 당시 병을 얻어 요양을 요하는 상태였다.⁵⁷⁾ 그녀의 공백을 보완하고
연기 진용을 안정시키기 위한 포석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임서방의 외
유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 이 시기 연극시장은 달라진 연극환경을 개선하
기 위해서, 내부 정지 작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임서방은 일본(대판) 출장을 떠났고, 한동안 연극시장은 그의
작품(각본, 연출) 없이 공연을 치렀다. 그의 작품이 다시 확인되는 시점은
1931년 8월 7일이다. 8월 7일부터의 공연에 임서방의 희극 <신가정>이
포함되었다.⁵⁸⁾ 이 작품은 신작이 아니었다. 1931년 8월 11일부터 12일까지
공연에 임서방의 <엄처시하 5인조>(전 1막)가 포함되면서,⁵⁹⁾ 임서방은 연
극시장에 새로운 각본을 제시했다. 그 이후 임서방의 작품이 연극시장에
서 공연된 것은 1933년 10월의 일이다. 1933년 10월 14일부터 공연된 예
제에 임서방 각색 <결혼전선 이상업다>가 들어있는데,⁶⁰⁾ 이것은 과거 작
품의 단순한 리바이벌이었을 것이다. 1933년 10월 시점은 연극시장이 부
활되고 난 직후로,⁶¹⁾ 과거의 흥행작을 다시 선보이는 기회에 해당한다. 다
시 말해서 임서방이 연극시장에서 선보인 거의 마지막 작품이 <엄처시하
5인조>였다고 할 수 있는데, 이로 판단하건대 임서방은 일본 외유 이후
연극시장과 실질적인 결별을 표했다고 할 수 있다.

56) 『매일신보』, 1931년 7월 26일, 5면 참조.

57) 김남석, 「사라진 눈물의 여왕」, 『조선의 여배우들』, 국학자료원, 2005, 245면 참조.

58) 『매일신보』, 1931년 8월 7일, 1면 참조.

59) 『매일신보』, 1931년 8월 11일, 1면 참조.

60) 『매일신보』, 1933년 10월 15일, 1면 참조.

61) 『동아일보』, 1933년 9월 27일, 8면 참조.

5. 신무대 시절(경영자 겸 연출가)

임서방이 연극시장과 결별했다고 추정되는 무렵, 임서방은 신무대에 가입했다. 신무대는 1931년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희극계의 총본영 신무대 제 1회 공연 제 1주'라는 선전 하에 신불출 작 향토극 <아리랑 반대편>, 송해천 안 <옛집이 그리워>(전 1막), 안광익 안 소극 <쌍초상>을 공연하면서 공식 출범했다.⁶²⁾ 창단 단원에는 임서방의 이름이 없다.

임서방은 1931년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시행된 '신무대 제 1회 공연 최중주간'에 공식 영입되었다. "금주 임서방과 신카나리아양 신가입 출연"이라는 광고 문구가 부기되어 있다.⁶³⁾ 임서방이 자신의 작품을 처음 발표한 것은 '신무대 제 2회 대공연'이었는데, 그는 <앵여라차 행진곡>(전 2막)을 발표했다. 당시 출연진을 보면, 여노동자役に 박정옥, 남편 고물상인役に 이종철, 고물상인의 부친役に 신불출, 복남役に 고용녀, 옥녀役に 김례분, 인기여배우役に 신카나리아, 시인役に 성광현, 맥이꾼役に 전경희가 출연하였다.⁶⁴⁾

<앵여라차 행진곡>은 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작품이 남아 있고, 공연 평⁶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극예술연구회는 제 2회 공연을 보고 임서방의 <앵여라차 행진곡>을 중심으로 극평을 남겼다(대표 집필자는 문귀주와 함대훈이었다).

<앵여라차 행진곡>은 2막 작품이다. 작품은 건축지에서 일어나는 노동자들의 분란과 그 해결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1막을 보자. 1막의 첫 장면은 건축장에서 일하는 10여인의 남녀노동자를 보여준다. 점심시간이 되어 나머지 사람들은 식사를 하러 가지만, 가난한 여자 노동자(박정옥 분)는 남편을 기다린다. 그녀의 남편 고물상인(古物商人, 이종철 분)이 나타나 4

62) 『매일신보』, 1931년 9월 10일, 1면 참조 ; 『조선일보』, 1931년 9월 10일, 5면 참조.

63) 『매일신보』, 1931년 9월 13일, 7면 참조.

64) 『매일신보』, 1931년 10월 18일 참조.

65) 극예술연구회동인합평, 「신무대 2회 공연을 보고」(상·하), 『조선일보』, 1931년 10월 20·21일, 5면 참조.

원의 이득을 얻은 것과, 남의 물건을 찾아주었으나 30원의 사례비를 거절한 것을 이야기한다. 다시 남편의 아버지(신불출 분)가 등장하여 그 이야기를 듣고 사례비를 받지 않은 것을 나무란다. 그러다가 뒤따라 온 사람이 30원을 돌려주려고 하자, 그 돈을 받아 결혼식 피로연으로 쓰자고 한다.

그들이 사라지면 고아인 복남(福男, 고용녀 분)과, 복남이 세들어 사는 주인집 딸 옥녀(玉女)가 등장한다. 둘은 배고파 피로워하고 있다. 그 때 복남의 누이인 인기여배우(신카나리아)가 등장하여 복남의 행적을 찾는다. 복남은 여자가 찾고 있는 사람이 자기임을 알지만, 누이가 운운하는 '체면' 등에 마음이 상하여 다음에 찾아오라고 일러준다.

복남은 누이가 간 뒤 어디론가 나가고, 그 때 혼자 있는 옥녀에게 한 할머니가 아들의 밥을 전해주러 온다. 그 아들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옥녀는 이 밥을 훔쳐서, 돌아온 복남에게 주고, 복남은 밖에서 호병(胡餅)을 세 개 들고 와서, 옥녀에게 준다. 그러다가 음식 임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나무라자, 두 사람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에 감동한 인근 노동자들이 그 가격을 대신 지불한다.

2막은 신랑신부의 피로연장이다. 피로연은 카페에서 열렸다. 그런데 그만 예정 금액보다 14원이나 초과가 되었다. 신랑신부와 그의 아버지는 무척 놀랐지만, 주위의 노동자들이 서로 돕겠다고 나섰다. 이 광경에 감격한 카페 주인은 비용을 받지 않겠다고 결정한다.

흐뜻한 분위기가 감도는 가운데, 복남의 누이는 복남을 알아보게 된다. 그러나 복남은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며 자기 같은 걸인고아는 화려한 여배우의 동생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듣고 허영에 가득 차 살아온 누이는 노동자 무리 속으로 들어가 '앵여라차' 소리를 내며 노동에 전념하겠다고 결심한다. 여기에 모인 노동자들은 내일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동에 전념하겠다는 결의를 다지며 막이 내린다.⁶⁶⁾

당시 평자는 작품에 대해서는 어색함을 지적하고 있으나 배우 연기에 대해서는 진전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카페에서 피로연을 한다는

66) 극예술연구회동인합평, 「신무대 2회 공연을 보고」(상), 『조선일보』, 1931년 10월 20일, 5면 참조.

것이 일단 비현실적이고, 가난한 사람이 30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피로연을 한다는 것도 역시 비현실적이며, 남에게 의지하지 말자는 이가 요리대금을 면제하는 것에 감격해서 굶실거리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 설정이라는 것이다. 또 복남과 그의 누이가 카페에서 만나는 것보다 작업장에서 만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러한 비판들은 작품 설정 상의 문제점이다. 그러나 연기자의 연기는 대체적으로 진전된 것이었다. 노인 역을 맡은 신불출은 대사와 동작이 자연스러웠고, 전경희는 작업장의 광경을 잘 나타냈다고 평가되었다. 복남의 누이 역을 맡은 신카나리아도 신무대에서 처음 공연했으나, 애상적 기분이 흐르고 있는 표정과 대사 동작 등이 훌륭했다고 평가되었다. 복남 역을 맡은 고용녀도 상당한 연기를 보여주었고, 옥녀 역을 맡은 김례분도 장래가 촉망된다고 평가되었다. 다만 성광현은 시인으로서의 열정이 적었고, 신랑 역의 이종철은 지나치게 유식한 말을 썼다고 비판 받았다. 박정옥은 조금 더 자연스러운 대사를 쓸 필요가 있다는 충고를 받았다.⁶⁷⁾

정리하면 임서방의 대사와 플롯은 여러 군데에서 어색함을 노출했으나, 배우들은 대본의 허약함에도 불구하고 보다 나아진 연기를 보여주었다. 특히 캐릭터에 따라 자연스러운 대사와 동작을 중시하는 신극인의 관점에서 보면, 캐릭터 분석을 행한 연기자들에게 후한 평을 주고 있는 듯 하다. 가령 노인답게 연기한 신불출이나, 애상적 기분을 보여준 배우 역의 신카나리아처럼, 특정 직업과 연령에 맞는 연기를 선호했다.⁶⁸⁾

임서방의 입단으로 신무대 레퍼토리 공급이 한결 수월해졌다. 그는 <앵여라차 행진곡>을 비롯해서, <저주받은 청춘>(1931년 10월 24일~)⁶⁹⁾, 사극 <배떠날 때>· 희극 <여권운동>(1931년 12월 5일~)⁷⁰⁾,

67) 극예술연구회동인합평, 「신무대 2회 공연을 보고」(하), 『조선일보』, 1931년 10월 21일, 5면 참조.

68) 김남석, 「신무대 연구」, 『2006년 동계 전국학술대회 발표집』, 우리어문학회, 2006년 2월 14일, 40~41면 참조.

풍자극 <행복아 일하는 곳에 잇서라>(1932년 1월 9일~)⁷¹⁾, 희극 <여권확장>(1932년 2월 11일~)⁷²⁾ 등을 창작했다.

하지만 조선연극사나 연극시장에서의 활동을 감안할 때, 신무대에 서 임서방의 활동은 다소 저조한 편이다. 특히 신무대가 제법 균형 잡힌 진용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는 다소 의외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임서방이 예술좌를 창립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시대극 <배떠날 때>를 재공연하고 희극 <여권확장>(희극 <여권운동>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추정됨)을 공연하던 1932년 2월 11일 경 이후, 그는 신무대를 떠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쩌면 두 작품을 재공연하게 된 시점에 그는 이미 신무대를 떠났을지도 모른다. 그러한 측면에서 출범기 신무대(협동신무대 이전)에서 임서방의 마지막 창작품으로 공연된 <행복아 일하는 곳에 잇서라>의 공연 광고에 '여배우 모집'⁷³⁾이 들어있는 것은 주목된다(1932년 1월 9일 낮부터). 만일 임서방과 그를 추종하는 일행이 이 시점에서 분리되어 예술좌를 창설했다면, 신무대로서는 여배우 난을 겪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정리하면 임서방은 1932년 1월 9일부터의 공연 무렵에 신무대를 탈퇴했고, 그가 탈퇴하면서 많은 여배우들이 동시에 탈퇴했고, 다만 미리 계획된 작품(창작)인 풍자극 <행복아 일하는 곳에 잇서라>가 공연된 것이 아닌가 싶다. 그의 탈퇴는 예술좌 창립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술좌는 어떠한 단체인가. 예술좌는 과연 독립된 단체였다고 할 수 있는가.

69) 『매일신보』, 1931년 10월 24일 참조.

70) 『매일신보』, 1931년 12월 5일, 4면 참조.

71) 『매일신보』, 1932년 1월 10일, 2면 참조.

72) 『매일신보』, 1932년 2월 13일, 2면 참조.

73) 『매일신보』, 1932년 1월 10일, 2면 참조.

임서방의 예술좌에 대한 기록은 1932년 3월에 나타난다. 임서방의 예술좌는 일본으로 시찰을 떠났는데, 그 때 임서방, 하지만, 장진, 김선초, 신카나리아, 고용녀 등이 참여하였다. 임서방은 연극시장에 있을 무렵에도 일본 시찰을 단행한 바 있었다.⁷⁴⁾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일본에 유력한 연관 세력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층 자세하게 예술좌의 활동 내역을 살펴보자.

‘예술좌-극계 동인들이 새로 조직하여’

우리의 신극을 위하여 오랫동안 활약하여 오던 임서방, 하지만 씨 등은 그동안 시내 청진동 청신여관에서 동인 10여인과 서로 손을 잡고 새로운 계획 아래에서 예술좌를 조직하고 오페라와 레뷰와 문예극을 하리라는데 금번 콜롬비아 회사와 취입 계약이 되었으므로 3월 2일에 서울을 떠나 대관으로 가서 취입을 마친 후 관동□서의 각 예술계를 시찰하고 동포 위안극도 공연한 후 서울로 돌아와서 제1회 공연을 하리라하며 응급으로 여배우 20명 가량을 모집한다는 바 뜻 있는 이는 상기 청신여관에 문의하기를 바란다 한다.

◇예술좌 동인- 임서방 김원태 하지만 장진 김철 김선초 신카나리아 고용녀 한나타샤 긴선정 외 수명⁷⁵⁾

임서방은 하지만 등과 청신여관에서 예술좌를 조직했다. 10여 명의 단원으로 시작했는데, 주목되는 것은 신카나리아나 고용녀 같은 신무대의 주축 단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시기 여배우의 이적은 극단에 치명적인 문제를 불러오는데, 이로 인해 신무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점은 예술좌가 콜롬비아 회사와 음반 취입 계약을 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일단, 예술좌가 연극보다는 음반 취입(음악 활동)에 주력했다는 증거이다. 또 공연 단체로서 자립성을 갖추기보다는 일단 임시로 만들어진 조직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이다. 신카나리아와 같은 배우는 연극배우라기보다는 가수에 가까웠다. 따라서 예술좌는 공연

74) 『조선일보』, 1932년 3월 1일(夕), 5면 참조.

75) 『매일신보』, 1931년 3월 1일 참조.

보다는 음반 취입에 치중했고, 일본 시찰은 실제로 음반 취입을 위한 도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시 출시된 레코드에 대한 1932년 5월 27일자 광고를 살펴보면, <홀에 비타령>과 <담바고타령>을 예술좌가 녹취(반주 콜롬비아 고나현 악단)했다는 기록이 있다.⁷⁶⁾ 참고로 콜롬비아 레코드 10월 신보에도 예술좌가 녹취한 년센스 <만약 당신이 결혼하시라면>이 소개되고 있다.⁷⁷⁾ 1932년 10월 시점에는 이미 예술좌가 신무대와 합병한 이후인데도, 여전히 ‘예술좌’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이것은 예술좌가 독자적인 연극단체라기보다는, 소규모 음반 취입 단체로 결성되었거나 당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주목되는 것은 향후 공연 일정이다. 음반 취입을 마치고 지방을 경유하며 연극을 공연하고 최종적으로 경성에 돌아온다는 계획은 그 자체로 신빙성이 별로 없다. 일단 공연도 없이 많은 배우들을 이끌고 이동한다는 계획 자체가 어리석기 때문이다. 이것은 예술좌가 창단 시점에서 공연할 수 있는 자원과 여건이 불충분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그러나 예술좌는 이후 5월에 부산에서 공연을 시행하였다.⁷⁸⁾ 하지만 그 외 예술좌에 대한 공연 기록은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임서방의 창작 활동도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임서방의 창작(재공연 제외)이 재개된 시점은 협동신무대가 된 이후인, 1932년 7월 15일 경이었다.

‘협동신무대’—‘신무대와 예술좌의 합동’ 단성사서 장기공연 오랫동안 삼남 지방 공연중이던 극단 신무대와 일본 시찰중에 있던 예술좌는 좀 더 진용을 완실하게 하라고 서로 결탁하여 협동신무대라는 새 극단 명으로 지난 9일부터 시내 수은동 단성사에서 합동공연을 하는 중인데 단원 70여명 중 여배우가 25명으로 장차 장기공연을 하는 동안 대체로 레뷰를 많이 하게 되리라 한다.⁷⁹⁾

76) 『매일신보』, 1932년 5월 27일 참조.

77) 『매일신보』, 1932년 10월 28일 참조.

78) 『조선일보』, 1932년 5월 4일(夕), 6면 참조.

79) 『동아일보』, 1932년 7월 14일 참조.

‘협동신무대’의 명칭은 실제로는, 위의 기사보다 빠른 시기인, 1932년 7월 9일부터 공식적으로 사용되었다.⁸⁰⁾ 임서방은 협동신무대의 합병 발표가 기사로 제시된 다음날인 1932년 7월 15일에 새로운 작품을 발표했다. 당시 광고를 참조하면, 협동신무대는 1932년 7월 12일인 직전 공연부터 ‘파격의 대중 요금’을 적용하겠다고 선전했으며,⁸¹⁾ 1932년 7월 15일 공연부터 ‘신예 제전부상연’이라는 공격적인 선전 문구를 사용했다.⁸²⁾ 7월 15일부서의 공연에서는 임서방의 비극 <수도원의 밤>(전 1막), 관악산인(이서구) 작 희극 <청춘은 깃불세라>(전 1막), 이경설 편 희극 <처녀구악부>(1막 8장)가 공연되었는데, 그 중에서 <처녀구악부>만 제외하고는 신작이었다.

임서방은 협동신무대기에 해당하는 기간인 1932년 7월경부터 1932년 9월경까지 활동했다. 이 시기 그의 작품으로 <수도원의 밤>을 포함해서, 1932년 7월 19일부터 공연된 비극 <불이야>(전 1막)와,⁸³⁾ 1932년 7월 23일부터 공연된 비극 <그 여자의 가는 곳>(전 1막)·레뷰식희활극 <일끝마다 대실패>(전 7장)⁸⁴⁾ 등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적으로 임서방의 활동 영역이 적어도 극작 영역에서는 대단히 축소되었음을 뜻한다. 대신 임서방은 예술좌를 창립하고 운영하면서 극단 대표의 길을 걸었으며, 작가와 배우로서의 위상 역시 보장받았다.

6. 태양극장 시절과 황금좌에서의 행적

태양극단은 미나도좌에서 1932년 2월 9일 밤 공연을 시작하며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창립 공연작은 박승희 작 향토극 <아리랑고개>(전 1막)·비극 <애곡>(전 1막), 박진 편 희극 <나무아미타불>(2막)이었다.⁸⁵⁾ 극단의

80) 『매일신보』, 1932년 7월 9일, 2면 참조.

81) 『매일신보』, 1932년 7월 12일, 8면 참조.

82) 『매일신보』, 1932년 7월 15일, 2면 참조.

83) 『조선일보』, 1932년 7월 20일(朝), 2면 참조.

84) 『매일신보』, 1932년 7월 23일, 8면 참조.

85) 『중앙일보』, 1932년 2월 11일, 1면 참조 ; 『매일신보』, 1932년 2월 10일 참조.

구성원을 보면, 박승희(연출), 박진(극본), 원우전·염유일·전일(무대장치, 조명), 이소연·이백수·박제행·윤성묘·양백명·심영·서월영(남자 연기), 석금성·김연실·강석제·강석엽·김선영·공제덕(여자 연기) 등이었다.⁸⁶⁾ 입서방은 1933년 12월에서야 입단했다.

극단 태양극장귀경공연-12월20일부터조선극장에서-금년유월에 대판계류 동포방문공연차로 경성을출발한 극단태양극장은 그동안 대판공연과남선순회 공연을마치고 오래간만에 서울에도라와 강홍식, 전옥, 입서방, 신카나리아 외 여러사람이 새로히 가입하여진용을 정제하여가지고 금월20일부터 시내조선 극장에서 공연케되리라는데 이번 레퍼토리는 박승희 작 대판계류동포의 신선한생활속에서 우러나온 '고향'이라는각본과 단종애사중에 박경년의 사실을 희극화한 것 '공포시대'라는것과 입서방 작 동학당을 배경으로한 '진군'이라는 각본등이라한다.⁸⁷⁾

입서방이 활동했던 조선연극사/연극시장/신무대와 달리, 태양극단은 토월회 계열이었다. 즉, 입서방은 취성좌 계열에서 주로 활동하다가, 토월회의 후신인 태양극단으로 이적한 셈이다. 한편 입서방과 함께 태양극단에 가입한 강홍식, 전옥 등도 이전까지는 주로 취성좌 계열에서 활동한 배우들이었다. 특히 강홍식은 조선연극사에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배우 겸 연출자로, 연극시장과의 경쟁 혹은 신무대와의 경쟁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대표로 활동했었다. 그러다가 조선연극사가 흥해성을 영입하면서, 조선연극사를 탈퇴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 취성좌 계열이 아닌 토월회 계열인 태양극단에 가입한 것으로 보인다. 전옥은 극단 이적과 거취에 대한 선택을 강홍식과 함께 했으며, 신카나리아 역시 예술좌 시절부터 입서방과 같은 선택을 한 바 있다. 따라서 네 사람의 이적은 실제로는 입서방과 강홍식의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입서방은 1933년 12월 20일부터 시작된 '극단 태양극장 대공연 제 1주'에 시대극 <진군>(전 1막)과, 폭소극 <연애는 투쟁으로부터>(전 1막)를

86) 『매일신보』, 1932년 2월 6일 참조.

87) 『조선일보』, 1933년 12월 15일, 부록 4면 참조.

발표했다. 태양극단은 박승희와 박진에 대한 대본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다. 공연 목록을 보면, 거의 대분의 작품이 두 사람에게 의해 집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작가의 영입은 필수불가결했는데, 임서방은 충분히 그 대상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임서방이 태양극단에서 발표한 작품은 이것이 전부였다. 임서방은 주로 배우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근거에 기인한다.

극단태양극장 평양에서공개-(평양)빈약한 조선극계에서 혜성과갓티 빛을 내고 잇는 태양극장에서는 음력 정월일일부터 부내금천대좌에서 공개하리라는데 동극장은 조선의일류남녀배우 리백수, 강홍식, 임서방, 전옥, 석금성, 신카나리아등 30여명을 진용으로하고잇느니만큼 각방면에서 비상한인기를집중하고있다.⁸⁸⁾

이 시기 임서방의 재능과 역할은 주로 배우 쪽으로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임서방의 그간 활동을 고려할 때,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었다. 이후 임서방의 흔적은 한동안 발견되지 않다가, 황금좌에서 그 자취가 발견된다.

황금좌는 1933년 12월 14일 도화극장에서 박고송의 비극 <가시는 아버지>(전 1막), 박영호 작 항구애화 <마음의 파지장(波止場)>(전 1막), 희극 <비극폐업>을 무대에 올리면서 공식 발족했다.⁸⁹⁾ 당시 진용을 보아도, 성광현, 서일성, 박창환, 박고송, 석와불, 전경희, 최선, 나품심(이상 배우), 박영호(작가), 원우전(미술) 등으로, 초창기 멤버 중에서는 임서방의 이름을 찾을 수 없다.⁹⁰⁾

물론 1933년 12월 무렵 임서방은 태양극장에 가입했으므로, 황금좌 출범과는 관계가 희박했을 것이다. 그 이후로도 임서방이 황금좌에 가입했다는 기사나 기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런데 1934년 5월 2일 '황금좌 대

88) 『조선일보』, 1934년 2월 14일(朝), 3면.

89) 『매일신보』, 1933년 12월 14일, 2면 참조.

90) 『조선일보』, 1933년 12월 19일, 부록 3면 참조.

공연'에 임서방의 신작이 발표되었다. 임서방은 레뷰희극 <매사실패>(1막 4장)를 발표했다.⁹¹⁾ 그 다음 공연에도 임서방의 작품이 발표되었다. 비록 재공연작이기는 하지만, <앵여라—차>(〈앵여라차 행진곡〉을 여겨짐)가 공연되었다.⁹²⁾

황금좌 공연에서 임서방의 흔적은 단 두 작품뿐이다. 배우나 연출가로 활동했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임서방이 황금좌의 전속작가로 활동했는지 여부는 속단할 수 없다. 그러나 임서방의 작품이 황금좌에서 공연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임서방은 황금좌와 적지 않은 관련을 맺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후 임서방의 활동은 베일에 싸여 있다가 유민영의 언급에 의해 1948년 전후에 남한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유민영의 언급이 옳다면, 임서방은 좌익 연극에 가담하지 않고 남한에 체류한 것으로 보이며, 연극인으로서 활동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더 이상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그의 활동을 재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7. 임서방의 활동 상황 정리

임서방은 한국 연극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작가도, 연출가도, 경영자도, 심지어는 배우도 아니었다. 그는 연극사의 뒤편에 알듯 모를듯하게 감추어진 인물이었다. 그러나 1930년대 대중극계를 살펴보면, 그의 흔적과 영향력을 강하게 발견할 수 있다.

특히 임서방은 다재다능한 연극인이었다. 그는 기본적으로 배우였지만, 창작 능력을 겸비하고 있어 전속작가로도 활동했다. 그가 조선연극사를 거쳐, 연극시장 창립에 관여했을 때, 그의 능력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는 연극시장의 좌부작가 겸 연출가로 활동했고, 창단 멤버로 극단 운영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91) 『매일신보』, 1934년 5월 2일, 7면 참조.

92) 『매일신보』, 1934년 7월 17일, 7면 참조.

그의 능력은 신무대로 옮겨 오면서 일종의 전문 경영자로 확대되었다. 그는 연극시장에서 일본 외유를 경험하고 신무대에 가입하면서 예술좌라는 새로운 극단을 만들 요건을 구비했다. 그는 신무대의 여배우들을 중점적으로 포섭해서 음반 작업을 주로 맡는 새로운 극단을 만들었다. 그의 분리로 신무대는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했던 것으로 판단되며, 그로 인해 그의 극단(예술좌)과의 재통합을 기획하게 되었다.

임서방이 다재다능했지만, 극단 운영은 쉽지 않은 문제였을 것이다. 더구나 1930년대 전반기는 약진하는 극단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기로, 극단이 자립하여 일정한 성취를 거둔다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예술좌 역시 연극 단체로서는 그 수명이 길지 못했다. 신무대와의 재통합을 통해, 협동신무대를 만들고, 그 이후의 활동을 재개했다.

임서방이 협동신무대를 탄생시키면서, 통합 극단 내에서 중요한 위상을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의 활동은 이전의 활동에 비해 무척 저조했다. 이후 신무대가 나운규의 영입을 통해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 임서방은 신무대에 남아 있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임서방은 신무대를 떠나 태양극단, 황금좌 등에서 활동했는데, 이전처럼 다채로운 활동을 하기보다는 제한된 영역에서 활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임서방 개인이나 당시 한국 대중극계를 생각했을 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임서방이 가지는 연극사적 의의는 세 가지 정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임서방은 대중극계에서 뚜렷하지 않았던 연출가의 개념을 사용한 인물이었다. 조선연극사의 강홍식도 ‘연출가’라는 개념을 직접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그런데 임서방은 작가(창작)의 영역과는 별도로 연출가의 영역을 독립시켰다.

둘째, 임서방은 배우뿐만 아니라 연출가나 작가로 활동하면서 연극 전반에 걸쳐 다채로운 경험을 축적한 인물이었다. 연극의 분업화는 현대화의 특징이나, 과거에는 작가와 연출가가 크게 분리되지 않았고, 배우가 작품을 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임서방은 1930년대 대중극계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연극인이었다.

셋째, 임서방은 한국 대중극계에 대한 무심한 정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연극인이었다. 그의 생몰 연도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이력에 관한 사항은 현 시점에서 알려진 바가 전무하다. 그의 작품 역시 거의 남은 것이 없고, 다만 <앵여라차 행진곡>이 전할 뿐이다. 이러한 현실은 1930년대와 대중극계에 대한 연극사적 정리가 필요한 이유를 간접적으로 웅변한다고 하겠다.

- 핵심어: 임서방, 배우, 배우사, 한국연극사, 신파연기(술)

<Abstract>

A Study on Im seo-bang as the dramatist and actor

Kim Nam-seok

This paper aims at re-illuminating the life and performance of Im seo-bang, and his status in theatrical performance history. Recordings and data about him can be said that reliable documents do not exist. This problem led to the distortion of drama history, causing biased interpretations about the actress. Thereupon, this work is to restore Im seo-bang's life on a basis of objective historical materials, and to reconstruct the trustworthy data about properties of his performance and his theatrical career. Examining the position of Im seo-bang pioneering the role of an actors in the history of theater, I have found the trouble early actors must have been faced with and problems in the theatrical and cinematal world. This study will also serve as supplementing some part of the history of actors, which is the weakest point in the Korean dramatical history.

- Key Words: Im seo-bang, Actor, The history of actors, Korean dramatical history, Sin-pa(Romanticism in Korea) dramatics